



'허정무호' 비상

김병지·정조국 이어 조재진 마저 입원

오는 6일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를 갖는 '허정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0일 칠레와의 평가전에 무기력증을 노출한 허정무호를 구하기 위해 긴급투입된 공격수 조재진(27)이 입원하면서 축구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
 조재진은 최전방 공격수의 임무를 띠고 1일 대표팀에 긴급소집됐지만, 신경성 위염과 장염 증세로 지난 2일 밤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의 출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호는 칠레와의 친선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안방에서 0-1의 패배를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노련미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됐던 노장 김병지(38·서울)가 허리 부상으로 5년 2개월 만에 단 태극 마크를 반납했다.

공격력을 보낼 수 있는 정조국(24·서울)도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다급해진 허정무 감독은 군복무 중인 골키퍼 김용대(29·상무)를 차출하고, 조재진과 오범석(24) 카드를 빼들었지만 '조커' 조재진이 출발 전부터 주저앉았다.
 또 다른 공격수의 차출을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선수가 없다. 프리미어리그 2호 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공격수 이동국(29·미들즈브러)은 2002월드컵의 영웅 수문장 이문재(34·수원)와 함께 아시안컵 음주파문으로 대표선수 자격이 정지돼 선발조차 불가능하다.
 갈 길 바쁜 허정무호의 운명은 프리미어리그 3총사의 발끝에 달렸다. 허정무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1·토트넘), 설기현(27·풀럼)에게 당초 예정보다 하루빨리 팀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표와 설기현은 3일 귀국해 곧장 광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집을 풀었다. 지난달 30일 부상에서 복귀한 뒤 첫 풀타임을 소화했던 박지성도 4일 오후 합류해 여수선한 팀 분위기 정리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에 아쉬운 준우승

카리 웹과 연장 접전 끝 고배 MFS 호주여자오픈골프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사진)가 호주의 최강자 카리 웹과 맞대결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신지에에는 3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의 킹스턴 히스 골프장(파73·6천82m)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 MFS호주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8언더파 284타로 웹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내쳤다.
 신지에에는 지난 달 지은희와 짝을 이뤄 국가대표전인 세계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두번째 출전한 대회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신지에에는 메이저대회 7회 우승을 포함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35승을 올린 호주여자골프의 지존 웹과 맞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 보였다.
 전반에만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인 신지에에는 3타씩을 줄인 작년 대회 챔피언 웹과 신에 멜리사 리드(잉글랜드)와 우승컵을 놓고 경쟁했다.
 리드는 4언더파 288타 3위, 라이트는 1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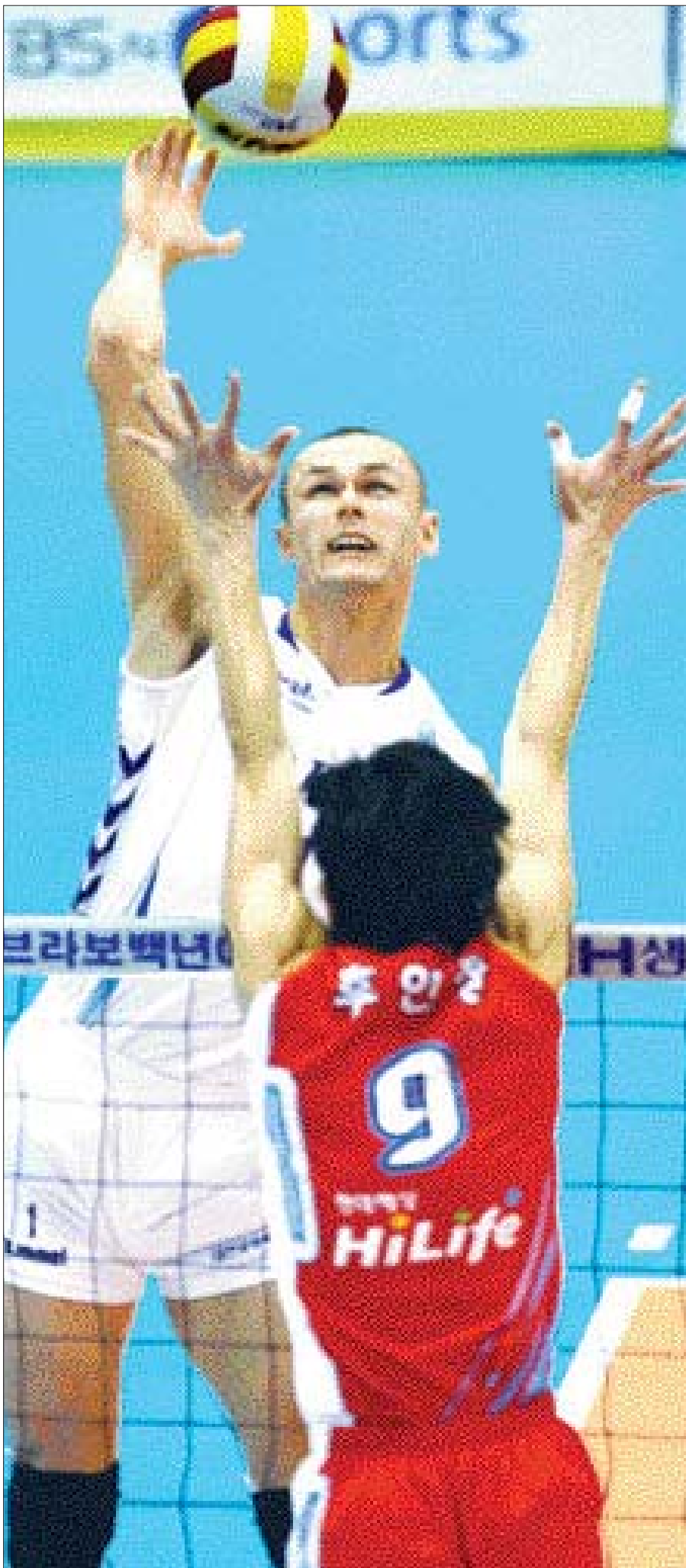
더파 291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감하면서 승부는 신지에와 웹의 대결로 좁혀졌다. 웹 피언조에서 추격하던 웹은 한 때 신지에와 2타차까지 뒤지기도 했지만 16번홀(파4)과 17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동타를 만들었고 끝내 신지에와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신지에에는 같은 홀에서 열린 연장 두번째홀에서 두번째 샷을 홀에서 멀리 떨어진 그린 가장자리에 떨어뜨렸다.
 신지에에는 희승의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볼은 홀을 외면했고 웹은 3m 이내의 챔피언 버디 퍼트를 밀구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양희영(19·삼성전자)은 2언더파 290타로 순위를 4위까지 끌어 올렸고 LPGA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나연(21·SK텔레콤)도 1언더파 291타로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젤코 '트리플 크라운' 삼성화재 3연승...선두

현대캐피탈에 3-1 역전승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라이벌 현대캐피탈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를 달렸다.
 삼성화재는 3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펜션경기장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중립경기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레프트 안젤코 추크의 맹활약으로 후인정(15점)이 분전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1(22-25 25-23 25-17 25-20)로 꺾었다.
 안젤코는 후위공격 10개, 서브득점과 블로킹 각각 4개 등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면서 36점을 뽑았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최근 3연승 행진으로 16승3패를 기록해 대한항공(15승4패)과 격차를 한 경기로 늘리면서 1위를 지켰다.
 반면 외국인 공격수 없는 현대캐피탈은 4라운드 틀어 3연승의 상승세를 타다가 뼈아픈 패배를 당해 13승6패로 3위를 기록했다.
 현대캐피탈은 19-19에서 이선규와 송인석의 연속 스파이크로 21-19로 앞선 뒤 23-

22에서 송인석의 이동공격과 삼성화재 고회진 터치넷 범실을 묶어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2세트부터 안젤코가 대포알 서브와 스파이크로 현대캐피탈 코트를 뱅크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2세트 9-12에서 안젤코의 스파이크로 연속 3득점 동점을 만든 뒤 접전을 이어가다 20-20에서 신선호가 속공과 가로막기로 균형을 깬 뒤 24-23에서 고회진이 송인석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역전극의 막을 올렸다.
 3세트는 안젤코의 원맨쇼였다.
 삼성화재가 5-4에서 안젤코가 스파이크 2개를 잇따라 터뜨리는데 이어 서브득점 3개를 뽑는 괴력을 발휘해 10-4까지 멀리 달아났다.
 이후 안젤코의 강타가 실세없이 터뜨리면서 현대캐피탈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었고 24-17에서 안젤코가 다시 스파이크를 날려 세트스코어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삼성화재는 4세트로도 지지 않는 안젤코의 스파이크로 근소하게 앞서다 17-16에서 고회진, 신선호의 속공과 안젤코의 가로막기로 연속 3득점한 뒤 23-20에서 현대캐피탈 송인석의 서브범실과 하경민의 네트터치에 편승해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07-2008 V리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안젤코가 강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10언더 공동 6위 '썩썩'

위창수 12위, 최경주 56위 PGA FBR오픈 3R

나상욱(24·코브라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번째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나상욱은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TPC(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FBR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이날 1개 버디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10언더파 203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낸 나상욱은 10위권에서 공동 6위로 뛰어올라 소니오픈(공동 4위)에 이어 시즌 두번째 톱10 진입을 바라봤다.
 선두 J.B 홀츠(미국·14언더파 199타)에 4

타차로 추격한 나상욱은 2005년 이 대회에서 공동 2위에 올랐었다.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도 이날 1개에 버디 4개, 보기 2개를 곁들이며 4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로 공동 12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하지만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는 한개도 잡지 못하고 보기 3개를 범하는 바람에 합계 3언더파 210타를 쳐 공동 56위로 밀려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전날만 해도 선두 그룹에 불과 3타차로 뒤졌던 최경주는 그린 적중률이 61%에 그쳤고 그린 적중수 평균 퍼트수도 2.0개까지 치솟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재미교포 엔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2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5언더파 208타로 공동 36위에 자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호석 (남, 1,500 m) 성시백 (남, 1,000 m) 진선유 (여, 1,500 m)

쇼트트랙 월드컵 '금빛 질주'

남자 쇼트트랙의 '2인자' 이호석(경희대)과 성시백(연세대)이 무릎 부상으로 빠진 안현수(한국체대 졸업예정)의 빈 자리를 보완한 금메달로 대신했다.
 이호석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시티에서 계속된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8초089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이승훈(한국체대·2분18초247)과 함께 금, 은메달을 휩쓸었다.
 이어 열린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오른 성시백(1분26초445)은 중국 대표팀의 말걸리 리에(1분26초722)를 0.277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여자부 1,500m 결승에서는 진선유(단국대·2분21초105)가 대표팀 후배 양신영(분당고·2분21초416)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금메달 사냥'의 포문을 열었다.
 대표팀 막내 박승희(서현중)는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불가리아의 단거리 전문 애브게니아 라다노바(1분34초523)에게 0.146초 뒤지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오랜 만에 월드컵 시리즈에 얼굴을 내민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는 남자 1,500m 경기에 나섰지만 예선에서 실격처리됐다.

샤라포바 첫 승 신고 페더레이션스컵 테니스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5위·러시아)가 여자테니스 국가대표전 페더레이션스컵(이하 페드컵)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샤라포바는 3일 이스라엘 라마트 하사론 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페드컵 월드컵 1회전에서 지포라 오브질러(85위)를 2-0(6-0 6-4)으로 가볍게 꺾고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첫 번째 단식 주자 디나라 사피나(16위)가 사하르 피어(17위)에게 1-2(6-0 2-6 2-6)로 역전패한 바람에 밀렸던 러시아는 샤라포바의 승리로 첫 날 승부를 1승1패로 마쳤다.
 페드컵은 4단식-1복식으로 이틀간 열린

골프 코너 회원권

| | | | |
|-----|-------|-----|-------|
| 골프장 | 시세 | 골프장 | 시세 |
| 광주 | 3,500 | 충청 | 1,700 |
| 남부 | 4,400 | 경기 | 1,900 |
| 클럽 | 6,400 | 도 | 2,100 |

성원 문의 (062)351-0095